

# 격렬한 몸싸움 인기 많은 '수중 핸드볼'

GWANGJU 2019. 알고 보면 더 재미 있는 세계수영대회

## ③ 수구

수비가 대형을 이루고 패스를 주고받는다. 수중에서 레슬링과 다를 바 없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다. 몸싸움을 이겨낸 선수가 슛을 날려 골망을 흔든다.

치열한 몸싸움으로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때로 시키는 수구는 수영팬에게는 인기 만점종목이다. '수중 핸드볼'로 불리는 수구는 이번 광주수영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가장 눈여겨 볼 종목 중 하나다.

여자 수구의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야 볼 수 있다.

여자 수구는 TV 생중계가 되지 않는다. 중계가 되더라도 지연중계가 필수다. 몸싸움이 워낙 심해 수영복이 찢어 지거나 벗겨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유럽과 북미에서는 물속에서 펼쳐지는 하키 경기처럼 격렬하고 치열한 선수들의 경쟁 때문에 인기가 높다.

수구는 다음달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남부대 종합운동장에 조성된 임시풀에서 개최된다. 대회 유일한 단체경기로 남녀 총 2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남부대 임시풀에는 경기풀(35×25×2m), 훈련풀(50×25×2m) 2개가 설치되며, 관람석 5000석이 들어선다. 이번 수구 대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연고팀 소속이거나 출신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추민중(전남도체육회), 정병영(한체대), 한효민(한체대), 오희지(여·전남수영연맹) 등 4명이다. 추민중·정병영·한효민 등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로 활약했다.

수구는 1900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13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경기에는 선수 6명과 골키퍼 1명이 된다. 경기

남녀 총 2개 금메달 놓고 경쟁

광주·전남 출신 선수 대거 출전

내달 14일부터 14일간 경기

男 헝가리, 女 미국·호주 최강

팀은 비교적 간단해 2개팀(각 7명)이 상대 쪽에 골을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다.

한국 남자수구는 1986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우리나라는 개최국 자격으로 수구 출전권을 확보했지만 여자 수구팀이 없다. 대한수영연맹과 광주시, 조직위는 남북 단일



한효민 추민중 정병영 오희지

팀을 구성해 자동 출전권을 활용키로 하고 북한과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에는 크로아티아의 수도 제그레브에 위치한 국립극장에서 조 추첨 행사가 열렸다.

이번 조 추첨을 통해 우리나라 남자팀은 유럽의 강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여자팀은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수구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유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남자수구는 헝가리와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등 강국으로 꼽힌다. 여자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공식종목으로 채택됐으며 미국과 호주가 세계 최강으로 꼽힌다.

역대 금메달 순위로는 헝가리가 15개로 1위, 2위 세르비아 12개 이탈리아와 러시아가 각각 11개로 공동 3위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BK수영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수구 예선 카자흐스탄과 경기에서 한국 대표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이 지난 14일 오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영산그룹 본사에서 박종범 회장과 투자 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소재 영산그룹 광주에 250억 투자

이용섭 시장·박종범 회장 협약 2023년까지 자동차 부품 공장

오스트리아 소재 국외기업인 영산그룹이 향후 4년간 250억원을 투입, 광주에 자동차 첨단부품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오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영산그룹 본사에서 박종범 회장과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영산그룹은 투자 협약에서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해 광주에 자동차 첨단부품 제조공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부품공장 건립으로 일자리 200개가 신규 창출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영산그룹 투자와 관련해 행정 지원과 함께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력 확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영산그룹은 광주 출신 박 회장이 지난 199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건립한 회사로, 지난 20년 동안 유럽지역에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고, 제조생산사업을 펼쳐왔다. 현재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20개국 35개 법인

및 공장을 운영 중이며 고용인원은 2500명에 달한다.

박 회장은 "광주 출신으로서 후배들을 위해 고향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오랜 꿈이었다"며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사와 함께 완성차 공장 신설, 국내 유일의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유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광주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역만리에서 광주의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회장님의 삶이 광주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대한 광주시민, 그리고 향우들의 열망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그룹은 현재 광주지역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력 확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영산그룹은 광주 출신 박 회장이 지난 199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건립한 회사로, 지난 20년 동안 유럽지역에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고, 제조생산사업을 펼쳐왔다. 현재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20개국 35개 법인

## 전남도 화순 생산 의약품·신안 천일염 北에 보낸다

수목비엔날레 北 작가 초청도 정부와 맞닿춰 남북교류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가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국내 유일 화순 백신 산업 특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과 신안 천일염을 북한에 보내고, 국제수목비엔날레에 북한 작가를 초청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업을 비롯해 문화·체육, 에너지·자원 등 분야 등에서 정부와 맞닿춰 남북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다짐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오늘로 연설'을 통해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를 말씀하셨고, 지난 10일 소련 출신 이희호 여사님께서 하늘나라에서도 국가와 국민, 민족통일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남기셨다"며 "전남도는 남북 국민 모두가 '공기처럼 느낄 수 있는' 일상적 평화에 대한 구체적 희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세계수영대회 시내면세점 (주)국민 선정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시적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주)국민이 선정됐다.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국민은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첫 면세사업자가 됐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지난 14일 전남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시적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주)국민을 선정했다. 특별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주)국민은 총 1000점 만점에 821.5점을

획득했다. 관광 인프라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내면세점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와 임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운영은 대회 기간인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지역 중견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광주·전남지역 우수기업 제품의 면세점 입점 등 해외 판로 개척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 기자 lion@

## 광주시, 자치법규 150건 하반기부터 정비

광주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치법규를 찾아내 올 하반기부터 정비를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현행 자치법규 950건을 살펴 이 가운데 150여건을 정비 대상 자치법규로 파악했다.

이들 자치법규는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경우 ▲제·개정 이후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명칭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시민생활에 혼란·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을 담고 있는 것

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발굴 결과를 토대로 법무담당관 중심으로 해당 실국과 '자치법규 정비 협업조직'을 꾸려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부당한 의무부과, 상위법령 불일치와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